

# 서양 미술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미술 스캔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미술의 위대한 스캔들

제라르 드니조 지음, 유에진 옮김

정치인, 연예인들의 사건과 관련된 말 가운데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있다. 휘발적인 이 말은 부정적이며 음습한 분위기를 환기한다. 비단 유명인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누군가 스캔들에 휘말렸다'고 하면 대체로 부정적인 일에 연루됐다는 것을 함의한다.

사전적 의미의 스캔들은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또는 치욕적인 평판이나 소문"을 뜻한다. 한 번 스캔들에 휘말리면 그것의 역효과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스캔들이 함의하는 낙인효과가 워낙 지대한 탓에 한동안 그것의 '울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사실 스캔들의 그리스어 어원을 보면 '함정', '장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스캔들은 죄를 짓게 만드는 무언가라는 것이다.

볼테르는 '철학사전'에서 스캔들을 "대체로 종교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심각한도둑 파렴치한 행위"로 본다. 대중들은 당연히 스캔들을 부패 또는

타락의 명징한 증거로 상정한다.

예술, 그 가운데 미술에서 스캔들의 방식은 스펙트럼이 넓다. 흔히 말하는 에로티시즘, 나체 등 미학적 기준을 제하더라도 말이다.

서양 미술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미술 스캔들을 다룬 책이 출간됐다. 파리고등예술교육원 교수인 제라르 드니조가 펴낸 '미술의 위대한 스캔들'은 스캔들을 야기한 그림 50점을 조명한다. 그동안 저자는 '예술의 대화', '이해하기, 인식하기' 등 예술 장르의 상호 작용에 관한 저서들을 출간한 바 있다.

스캔들의 방식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여성의 나체다.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 (1863년)는 현대 회화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되지만 당시 평단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들은 여신도, 요정도, 알레고리도 아니었으며, 고귀한 부르주아지의 눈에는 단지 '창녀'일 뿐이었다. 당시 마네에 적대적이었던 언론은 모델 여성의 부도덕함을 비난할 때 그것을 담고 있는 작품 자체의 하자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난했다."

일테면 이런 주장이었다. 부도덕한 대상에 대한 표현은 별수 없이 하자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것은 또한 그림을 그린 화가의 도덕적 결로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쿠베르의 '잠'과 르콩트 뒤 누이의 '백인 노예'에 이르러서는 그 같은 낭만주의에 토대를 둔 논리는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화적 관점에서 보면 조형성의 남다른 감각을 엿볼 수 있다. "초목을 비추는 흔들리는 빛, 그것에 맞추어 가볍게 떨리는 나뭇잎, 수면의 점진적 변화, 인물들의 형상"과 같은 부분이 조형성을 매개로 새롭게 들여다볼 여지를 제공한다.



19세기는 스캔들의 세기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전 세계에는 사실상 종교가 거의 스캔들과 연관돼 있었다. 저자는 마사초의 '낙원으로부터의 추방', 카라바조의 '성모의 죽음', 폰토르모의 ' 옮겨지는 그리스도',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등이 종교와 결부됐다고 본다.

그러나 20세기 이후부터는 스캔들 개념이 달라진다. 이전까지는 작품을 공격한 이들에 의해 스캔들이 일어났다면 현대는 의도적으로 스캔들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언론은 대중성을 프리즘으로 스캔들을 확대재생산한다. 남성 소변기를 출품한 뒤상의 '샘', 이난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검은 십자가'는 기존의 관념을 전복시킨다.



에두아르 마네 작 '풀밭 위의 점심 식사'

저자는 15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기까지 화가들은 내용에 있어 도덕성을, 형식적 측면에서는 기법을 '위배'했다고 본다. 물론 경우에 따라 둘 다 '위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오노레 드 발자크의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스캔

들을 일으킨다"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책의 전편에 흐르는 주제는 이렇게 요약될 것 같다. '예술 스캔들을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봐야 한다.' <미술문화·2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사자가 푸른 눈을 뜨는 밤

조용호 지음

제목이 눈길을 끄는 소설이 있다. 제목 자체가 작품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제목이 소설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몫이기 때문이다.

조용호 작가의 장편소설 '사자가 푸른 눈을 뜨는 밤'은 아픈 기억이 모티브다. 지난 1998년 '세계의 문학'에 단편을 발표하며 소설을 썼던 작가의 두 번째 장편이다. 또한 작가는 소설집 '떠다니네', '베니스로 가는 마지막 열차'와 '노래, 그 사랑에 빠진 그대에게', '시인에게 길을 묻다' 등의 산문집을 펴냈다.

이번 장편은 '기타여 내가 말해다오' 이후 12년만에 발간한 장편소설로, 작가는 오랫동안 이 소설이 구체적으로 서사로 전이될 이야기를 찾고 있었다. 사랑했던 이의 사자조차 알 수 없지만 평생 그리워한 한 남자의 이야기다.

소설은 지난 1980년대 아련한 회색의 사건을 단초로 펼쳐진다. 당시 실종됐던 하원을 잊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나는 온통 그리움에 빠져 있다. 이야기는 어느 날 하원을 꼭 빼닮은 여인을 만나면서 역동적으로 전개된다. 나는 그녀와 함께 의문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하원의 실종을 추적한다.

소설의 제목 '사자의 푸른 눈'은 이스파한의 3대 미스터리 하나의 이야기다. 남쪽 사자상 앞에서 북쪽 사자의 눈을 보면 푸른빛의 레이저 광선이 보인다. 아무런 조명도 없는데 어떻게 빛을 발할까. 작가는 한 여인을 품고 살아온 남자의 이야기는 그리워하는 존재들의 눈을 어둠에서 빛을 쬐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다.



<민음사·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21세기 상호부조론

딘 스페이드 지음, 장석준 옮김

지난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을 강타했다. 당시 강력한 태풍은 많은 이들을 이재민으로 만들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의약품 등 생활필수품이 지급됐다. 이들을 도운 것은 정부가 아니라 자원활동가들이다. 오쿠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에서 태동한 자원활동가 기반 네트워크 오쿠파이 샌디였다.

21세기는 자선이 아닌 연대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변호사이자 시애틀대학 로스쿨 부교수인 딘 스페이드가 그 주인공. 그가 이번에 펴낸 '21세기 상호부조론'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상호부조'라는 사실을 역설한다.

작금의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확산과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는 '비상상황'이나 다름없다. 기후위기가 낳은 산불과 홍수, 민족과 종족간의 갈등과 반목, 젠더 폭력, 날로 심해지는 부의 불평등은 임계치를 넘은 지 오래다.

이런 비상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다. 여러 나라에서 보듯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보다는 지역 사회 안에서 함께 자원을 나누고 취약계층을 돕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 운동과 연계 하여 벌어지는 이러한 구조화들을 '상호부조'라고 한다.

저자는 재난과 혼란의 시대일수록 국가와 개인 사이의 제3의 주체가 상호부조 단체로 나섰다고 언급한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상호부조 단체가 증가했으며 사람들은 상호부조를 조직하는 방법을 도모해왔다. 책에는 저자가 활동가로서 현장을 누빈 경험을 토대로 상호부조를 견인했던 내용들도 담겨 있다. 단체 내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겨 있다.



<니켈북스·1만5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뜨거운 미래에 보내는 편지

대니얼 셰럴 지음, 허형은 옮김

지구에는 해를 거듭할 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북극의 빙하는 연신 녹아내리고 세계 곳곳에서 역대급 가뭄과 산불 등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재앙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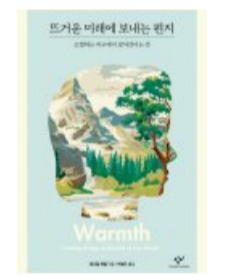
특히 기성세대보다 MZ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먼 훗날의 일이 라기 보단 목전에 닥친 현실이며 기후위기 앞에 느끼는 절망감이 더 깊다.

미국의 젊은 환경운동가 대니얼 셰럴은 이같은 기후위기를 목도하며 자신이 느낀 절망과 슬픔 그리고 그 가운데 견져올린 희망을 미래 아이들에게 전하는 책 '뜨거운 미래에 보내는 편지: 소멸하는 지구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펴냈다.

저자 대니얼 셰럴은 대학 신입생 시절 UN 전화결기 운동 참여를 시작으로 10여 년간 환경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해 왔다. 그가 활동한 미국의 환경단체 NY리뉴스는 2019년 미국 뉴욕에서 기후정의 법안을 정식 통과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환경운동가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기후위기를 생각할 때마다 찾아오는 무력감은 여전했다.

그는 책에서 아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쩌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의 아이들에게 자신이 느낀 감정을 편지 형식으로 솔직하게 전한다.

소멸해가는 세계에서 성장한 청년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행동, 그 과정에서 마주한 복잡한 슬픔,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싸워나가는 내밀한 성찰과 폭넓은 인문학적 사유를 유려한 글솜씨로 펼쳐보인다.



<창비·2만원>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